

힐링교회 성경공부 - 창세기 8주간

창세기의 주요 내용 4사건, 4사람이 등장합니다.				
4사건	창조(1~2장)	타락(3~5장)	홍수(6~10장)	바벨탑(11장)
4사람	아브라함(12~24장)	이삭(25~27장)	야곱(28~36장)	요셉(37~50장)

1. 창조

하나님께서 광명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
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으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심판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
시는 길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십니다.

3. 대홍수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에
게 자비와 소망을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루게 해 주십니다.

	타락	홍수	바벨탑
주요인물	아담 & 하와	세상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
대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언약 있음	언약을 알지 못한 사람들	언약 있음 + 언약을 잊은 사람들
죄성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 하나님 없이
죄의 형태	표면적인 죄악	의미적인 죄악	복합적인 죄악

지난 시간 (묵상했던 것들 나눔)

넷째 주간 : 바벨탑 (11:1 ~ 9절)

이야기 형태(그릇) : 교만과 야심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을 조정하게 하기 때문
에 결국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거부하게 되고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주요사건입니다.

핵심 주제 : 인류의 집단적인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

중심 구절 : 창11:1~9

1) 타락

가. 인간의 반역과 바벨탑 건축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땅 위에 증가하게 되자, 인간들은 단체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였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 인간의 교만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나. 반역의 기초: 하나의 언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다. 인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11:1)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다시는 홍수가 나도 죽지 않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계획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는 지극히 불경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지극히 불경한 생각인 것이다.

다. 바벨탑 건축의 동기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인류의 도시 문명은 인간의 교만과 죄와 함께 세워졌다. 그들은 그 탑을 쌓고 자신들의 명성을 내려고 하였다. 위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건설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였다. 이런 운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류는 한 마음이 되어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다. 그들이 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또 하나의 목적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머무르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온 땅에 충만 하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하였다.

2) 심판-언어의 혼잡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인간들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언어를 따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탑은 바벨('혼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3) 하나님의 은혜-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한 민족을 예비하심

하나님께서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인류를 구원할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닿는 도성을 건설함(11:1~4)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 (11:5~6)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11:7~9)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

성경본문 : 토론 질문	
1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하셨을까요?
2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3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4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가 가능한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에서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무엇인지 기록해 봅니다.	
1	
2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자신의 노력은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